

# 잇단 폐교에...전남 '작은 학교 살리기' 총력전

### 저출산→폐교→지역 소멸로 이어져...전남 40년간 829곳 문 닫아 '60명 이하' 학교 증가세...도교육청, 공동학구제 등 대책 마련 고심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들의 폐교가 줄을 이으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된 학교가 전국에서 총 3834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인 2539곳이 1991~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

특히 최근 1년간(2019년 3월~2020년 3월) 폐교 수가 전국 50곳으로, 직전 3년(2016년 3월~2019년 3월) 평균 폐교 수(35.3개교)보다 늘었다. 저출산의 여파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먼저 타격을 입고 있다.

전남의 경우 위기감이 더 심해 지난해까지 폐교된 학교가 829곳에 달했으며,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2012년 246개교에서 지난해 325개교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학교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미노 폐교 위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며,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소멸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각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도 막히고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 등 지역 교육청들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5년 전부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역시 섬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부 권장기준 보다 완화된 학생수 기준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즉 교육부가 제시한 통폐합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교통과 지리적 특성,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목적

이다. 2015년 7곳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3곳에 대한 학교 통폐합을 완료했다. 올해도 분교장 개편을 포함해 초등학교 10여 곳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준경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단순하게 감소 학생 수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어촌 황폐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별 교육여건을 감안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과 지역의 생존성은 불가분 관계인 만큼 인구 유입과 교육여건, 지역민들의 희망 등을 꼼꼼히 챙기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는 등 합리적인 통폐합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산불, 초동진화가 중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6일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과 산림팀 산불진화대원들이 운동장 옛 산불 감시초소에서 등짐펌프를 이용한 산불 초동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세월호 7주기 추모 전남도교육청, 12~23일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추모 기간에 사이버 추모관(전남 교육청 홈페이지 배너)을 4·16재단에 연계해 운영한다.

각급 학교는 특별 수업(계기 교육)으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계기 교육에서는 추모행사자료, 수업활용자료,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인권, 평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또 16일 목포시항에서 '세월호 잊지않기북포지역공동실천회의'가 주관해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 및 다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가치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초 1~2 문해·수리력 향상 전문인력 1 대 1 수업 진행

### 광주교육청 집중지원 프로그램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8월(여름방학 포함)까지 '2021 제1기 초등학교 1~2학년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1기 초등학교 1~2학년 집중지원 프로그램은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올해 도입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일환이다. 정규교사를 전문 인력으로 배치, 담임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지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초등 저학년 때부터 진단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교 초등학교(동부 6개교·서부 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 담임교사의 지도 뒤에도 복합적인 요인으로 문해력·수리력에 어려움을 겪는 1~2학년 학생들을 지도한다.

정규교사인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교에 상주(월·수·금 오전이나 오후 또는 화·목 오전)하며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주 2~3회 1대1 맞춤형 개별 지도에 나선다.

수업은 담임교사와 학부모와 협의, 학생의 학습 상태에 맞춰 기초학력 전담교사·담임교사 협력수업, 방과 후 수업, 수업시간 중 일부 시간에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별화 수업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

학생들이 보통 수준의 문해력·수리력 역량을 갖춰 교실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지도를 마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북구,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지자체 선정

광주시 북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1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지자체 공모'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

한복문화교육 운영 사업은 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한복문화를 일상으로 더욱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북구 문화원(원

장 오동오)과 함께 지역 학생을 비롯해 특수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정인순 대한민국명장 등)들의 한복 이론 교육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복 착용, 비석치기, 옷놀이 등의 체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북구 문화원 내에 상시 체험관을 마련해 의복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복문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복문화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영산강환경청, 미세먼지 유발 업체 25곳 적발

### 오염물질 방지시설 방지 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한 업체 다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영산강청은 광양·순천·여수 등 광양만 권역과 광주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를 지난달 특별점검해 25개 업체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고장 나거나 훼손된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방치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4건,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장치 미흡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 각 1건 등

이었다. 영산강청은 사안이 중대한 위반 사례는 자체 수사 후 담당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행정처분 하도록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영산강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이동식 측정 차량, 광학가스이미징 카메라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면서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잘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